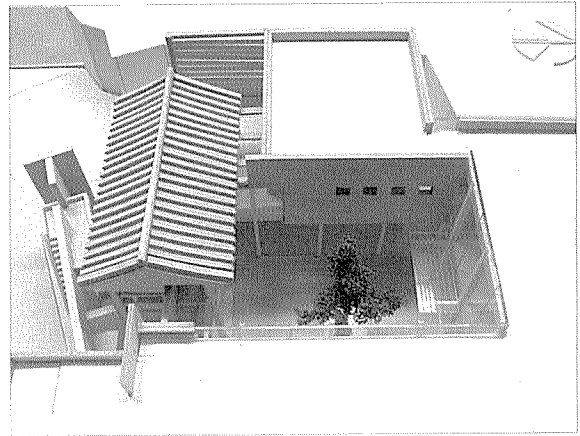


이 생똥스러움! What an Unexpectedness!

이종건 /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by Lee Jong-Keun

건축가 유태용. 그의 이름을 듣고, 그를 만나고, 그래서 급기야 그의 작품들을 살펴본 일련의 과정은 참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늘 익숙하던 길을 걷듯, 그가, 그리고 그의 작품이 좋고 편안하다. 왜가? 대답하기 힘들다.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는 버클리에서 M.ARCH를 마치고 현지에서 5년 여간 실무를 쌓으며 AIA를 딴 후, 우리나라에서 10년간 꼬박 창조건축이라는 거대 설계집단 디자이너로 일해 왔다. 그런데, 그는 여지껏 나에게 그리고 우리 건축사회에 아직 낮이 설다. 그렇다고

I have not known architect Yoo Tea-yong - it was only recent that I heard of his name and got to meet him, and finally came to know his works. Yet he and his works, from reasons unknown to myself at this moment, have a quality of intimacy. The buildings by this architect, a graduate of Berkeley who had worked in the US for five years as AIA before returning to Korea to execute further practice at a major design firm Changjo Architects for the last 10 years, never fail to provide us with a sense of comfort. We are largely unacquainted with Yoo but still he - with all the works created from the last decade - doesn't seem to fit with the characterization as a 'newcomer.' In the least, he himself has as much quality as an architect as any other established designers of our architectural society. How such a competent architect has only now emerged on the horizon remains to be a problem of chance or his preference to stay below the radar, but it is certain his fresh vision of architecture will provide an occasion for our architectural circle to reflect on itself. His recent work, Seomi Gallery, is one with outstanding details and innovative form, incorporating the different worlds of house and



서미갤러리 모형

또, 그가 관통해 온 세월들을 보건대, 그리고 그가 작업해 온 성과들을 두고 판단컨대, 그에게 신인이라는 언어를 들이밀기에는 적절치 않은 듯 하다. 한 사람의 건축가로서 그는, 우리건축의 리딩그룹을 형성하는 이들에 비해 전혀 손색없고 또 충분히 원숙하며, 어쩌면 그들을 넘어서고 있는 것도 같다. 그가 이제 출현한 것은 그러니, 지금껏 자신을 드러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 속단할 수밖에 없다. 혹은 여러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저어하는 성격 탓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가 이번엔 자신의 작품들을 우리

gallery, tradition and the modern. It attracts our cerebral attention and instigates debate. But, as in other cases, to comprehend the work in its total in this short essay is out of the question - I do not believe that is the object of a criticism. Instead, I will look into its features that excited both my body and soul, its many layers of architectural meaning, and through them, I may be able to express some stories of architecture within myself.

It all begins with the 'unexpectedness' of Seomi Gallery. The tension inside my body is stirred up by the immediacy, contrast and juxtaposition of one and the other that flows within it. Seomi Gallery has the unexpectedness that discovered such flow in bulk. To analyze its images from various directions, I would like to bring out the vocabularies of Gaston Bachelard, the metaphysician of the imagination. He had mentioned that the imaginative force of our mind essentially stems from two axes - one of enjoying the unexpected that enables a transcendence upon the new, and the other of digging into the bases of one's existence and simultaneously

앞에 내민 것은, 우리 건축계의 기쁨이요, 우리 모두를 의미 있게 자극하는 소중한 계기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서미 ...'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거의 완벽한 디테일과 탄탄한 조형성을 토대로, 집과 갤러리라는 두 다른 프로그램, 그리고 전통과 현대라는 두 다른 세계를 동시에 거머쥐고 있는 까닭으로, 적지 않은 지적 호기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품이니,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여기서 깡그리 파고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비평행위 또한 그러함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나는, '서미 ...'가 담지하고 있는 많은 건축 차원과 질들 중, 유독 나의 몸을 긴장시키고 나의 정신을 이완시킨 내력을 더듬어내기를 희망하며, 그래서 무언가 나의 건축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 뿐이다.

이야기는 '서미 ...'의 생뚱맞음에서 시작하자. 내몸의 팽팽함은, 그 안에 흐르는 이것과 저것간의 급박함이며, 격렬한 부딪힘이며, 그래서 때로 감당할 수 없는 병치에서 생생히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 흐름들을 채로 쳐 발견한 생뚱스러움. 그 상들을 이모저모로 뜯어보기 위해, 상상력의 형이상학자 가스통 바슐라르의 언어들 뒤져본다. 그는 말한다. 우리의 정신에서 비롯하는 상상하는 힘(imagination)은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개의 축 위에서 전

finding a primitive, perpetual value. They are respectively named formal imagination and physical imagination, but in fact are intertwined with each other beyond division. Hence the image that gives birth to imagination is like a plant that feeds on heaven and earth, or form and substance. The unexpectedness one feels from Seomi Gallery may be similar, as it provides us with happy accidents as well as a nostalgia towards the unknown origin.

There is a castle gate in the middle of this village, and a residence tops that gate. A house is often compared to a castle. Therefore, one that sits inside the castle gate may be a castle of abstraction or that of non-existence. Our eyes and the vision it provides, however, discourage us from such exuviations. We are bound, in every inch of the house, with the signifier that symbolizes the castle gate, the image of traditional housing that forms the body of the castle. 'Here' - the very spot I stand on - becomes the castle only because 'there' is not. Whether it is a strong door, a firm gate, or the charisma of tradition, it is because of the border that our heart may ensure us of security and rest. It is a place that is closest to the

개하는데, 하나는 새로움 앞에서 비약을 모색하도록 하는 예기치 않은 사건의 즐기이요, 다른 하나는 존재의 근원으로 파고 들어감으로써, 거기서 원초적이고 영원한 무엇을 동시에 찾아 나서게 한다고. 그런데, 이름하여 형식적 상상력이라 하는 전자와 물질적 상상력이라 일컫는 후자는 피차 분리할 수 없이 엉겨있다. 그래서, 상상을 잉태하는 이미지(image)는, 하늘과 땅 곧 형식과 물질을 먹고 자라는 하나의 식물일 수밖에. '서미 ...'의 생뚱맞음 또한 그럴지 모른다. 거기에는 예기치 않은 즐거운 사건이 발생하고, 무언지 모를 근원에 대한 향수가 일어난다.

동네 한복판에 자리잡은 성문(城門). 성문 위에 올라선 살림집. 집은 하나의 성(城)이라 했다. 그렇다면, 성문, 그 안에 자리잡은 것은 추상(抽象) 혹은 부재(不在)의 성인가? 그래도 우리는 눈의 시각을 좀체 탈각할 수 없다. 허니, 집 어디에선들 우리는 그 성문을 은유하는 기표로부터, 아니 성의 육체를 이루는 한옥의 상으로부터 떠날 수 없지 않은가. 내가 있는 이곳은, 저곳으로 인해 비로소 성이 된다. 그것이 굳건한 대문이든, 혹은 단단한 성문이든, 혹은 전통의 카리스마든, 철저한 보호와 안식을 우리의 마음이 보증하는 것은 그 경계 덕이다. 바깥에 가장 가까이 있되, 집 안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집밖에서 단번에 거기에 이르려면, 거기를 점하는 사람이

outside, and is most distanced from the interior of the house. (In order to reach the place directly from outside the house, a person that occupies the place must first open its lock. And to approach the place from inside, one must turn 180 degrees either around one's left arm, or one's right arm but only with going outside once again wearing one's shoes and then enter at another spot.) A place that seems so close can only be reached at such distance! Hence our thoughts cannot step aside from the path that connects this place and the other. One cannot neglect the other for a single moment, and, at the same time, may not leave this place. In its barren mindscape, the traditional housing exists on its own. It protects itself with the air on one side, and with light on the other. Bound within a single body, yet separated at such length, it features a distance that utterly resistant to reduction.

Such may be the true character of a castle. Protective against - or even hostile to - the outside, it also has to have layers of hierarchy in the inside. This is also true of Seomi Gallery, which displays all the features of this world. As we open the

먼저 빗장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일단 집안에 들어서서 거기에 가려면, 왼팔을 축으로 삼아 한 바퀴 빙 돌든지, 혹은 오른팔을 축으로 하되 벗었던 신발을 다시 챙겨신고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서야 한다. 막 손에 잡을 듯 한 그곳이 이리도 먼 곳에 있다니! 그러므로 사유는 반드시 이곳과 저곳을 오가는 길목을 비켜설 수 없다. 잠시도 저곳을 망각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한시도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이 황망함! 마음이 그러하듯, 한옥은 오직 홀로 떨어져 있다. 한쪽으로는 공기로, 또 한쪽으로는 빛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다. 한 몸을 이루되, 저리도 떨어져 있는, 범접을 물리치는 힘! 도무지 줄일 수 없는 거리!

성이란 본디 그런 것이던가. 바깥세상에는 철저히 방어적(혹은 적대적)이면서, 안으로는 여러 단계(혹은 위계)를 두어야 함을 새삼 깨닫는다. 그래서, '서미...'도 그러한가? 여기서 세상을 보기는 그만이다. 이 문, 저 문을 열어제치면, 집 바깥의 풍광이 서스럼없이 들어온다. 모든 것은 흐르고 흐르되, 남는 것은 오직 그 흐름을 담은 이곳 허체뿐. 바람이며 빛이며, 그리고 모든 주변 것들이여. 소리없이 나의 몸을 관통하라. 그러므로 나의 몸 또한 허체. 그러나, 어찌 하랴. 이 둘레에 머무는 이들이며, 그대 눈에는 삭막하디 삭막한, 회색 덩어리들뿐이니. 이곳이 바로 성이므로. 성은 자신을 홀로 지키되, 더불어 교착하지 않

windows of this house so many beautiful sceneries catch out eyes, and as everything flows what is left in this container of the flow is the body of the void. Let all the lights, the winds, and everything that surrounds us penetrate me with impunity. My body then also becomes a void. But to those that dwell on the borders, they can only see the bodies of harsh grays. This is the castle, and the castle by itself and only by itself protects it. The depth of space is the criterion for power, and what we see time after time are the faces of those. What should we do with these powers? Are we only left with the choice of following the strict order disclosed from here to there? Space exhibited is contained with exchanges, while visible decorations are signs of false empowerment. Therefore a castle is our symbol even before it is a place, and it is certain that it has arisen from the dark shades of the gallery and the house. This will also be true of near-perfect details and sculpture-like devices. Therefore we must not view this work as a regular residence. Is it a gallery-like home, or a home-like gallery? It does not permit an easy solution to this obscurity.

는 법이므로. 공간의 깊이는 권력의 지표. 보고 보이는 것 또한 그 얼굴. 이 힘들을 어찌 할꼬. 보이지 않는 곳곳에 은닉된 철저한 위계를 그저 따를 수밖에 없는가. '전시'된 공간에는 거래가 오가고, 드러내는 장식에는 과시가 파리를 튼다. 성은 그래서 하나의 장소가 되기 전에 벌써 우리의 상징이 되었던가. 그것은 갤러리와 집의 습합으로부터 출몰했을 것이 분명하다. 완벽에 가까운 디테일의 기예와 조각같은 장치들 또한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집을 마냥 살림집으로만 보아서는 안될 일이다. 집을 갤러리로, 갤러리를 집으로? 무수한 인식의 머뭇거림을 요청한다. 이 난 삼함!

집은 모든 의미에서 고향이다. 설령 노마들러지의 세계에서도, 그것은 단지 존재의 방식만 다를 뿐, 여전히 고향이다. 움직인다는 것. 그래서 모든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집을 짓고 산다. 그런데, 고향은, 다시 바슐라르의 언어를 빌자면, 공간의 넓이보다 물질이다. 다시 말해서, 돌이나 흙이나 바람이나 건조함, 물이나 빛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그 속에서 우리의 몽상을 물질화 하고, 그것에 의해서만 우리의 꿈에 적합한 실체를 얻으며, 그것을 향해서만 우리의 근원적인 색깔을 발견하는 것이다. '서미...'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가? 거기에 우리 고향의 어두운 빛이나 밝은 어둠이 있는가? 울퉁불퉁함과 부

A house is our hometown in every respect. Even in the world of nomads, it is still our hometown - it simply has a different way of existence. In movement, in the flow, we still build a house for ourselves. In the words of Bachelard, a hometown is more of a material than an area of space - i.e. it is stone, soil, wind, dryness, water or light. Within them we materialize our dreams and only through them do we gain a substance that suits our dream. Only through our way towards it can we find our true colors. What materials are there that forms Seomi Gallery? Does it have the dark or bright lights from our hometown? Does it have the irregularity, the broken curves, the swinging lines? The sound and the warmth? The risk that manages to protect us from the rain and the wind? The soil that supports the root of a tree whose branches sustain the heaven? Are the rocks solid? Is the wind whirling? Alas, I have been beating the bushes. The secret of this unexpectedness is not to be found in the sphere of forms. Because of the structural freshness produced from the crash between two different worlds, I have been in a state of dreaminess. The invitation to forms has been so strong that I have

러진 곡선들과 휘어진 직선들이 있는가? 바삭거림과 양지가 깃들어 있는가? 한낮 졸음을 받아주는 한가로움이 있는가? 비와 바람을 이슬이슬하게 막아내는 위태로움이 있는가? 하늘을 받치는 가냘픈 나무의 뿌리를 물어줄 한 줌 흙이 있는가? 돌은 단단하고, 또 바람은 우는가? 아뿔사, 나는 생똥스러움의 비밀을 온통 형식 안에서 더듬거렸구나. 두 이질계의 부딪힘이 생산하는 구조적 새로움으로 인해, 나로 하여금 예기치 않은 몽상에 젖게하는 사건에 빠져 있었구나. 여기저기에서 형식의 육육에 흥미해져, 물질을 파헤칠 정신을 놓치고 말았구나. 도대체 '서미 ...'의 물질은 무엇이던가?

응당 무던 나의 감성과 거친 나의 사유에 그 탓을 두어야 할 것이나, 이번에는 비평이라는 빌미로, 건축가에게 쓸쩍 밀어보자. '서미 ...'의 형식과 물질들의 골구가, 두 다른 세계간의 소통을 중재하는 역(關)이 흐리멍덩하거나 혹은 부재한 까닭이라 닷해보자. 보임으로 존재하는 갤러리와 숨김(은신)으로 성립하는 살림집간의 이질적 습합에서 비롯한다고 해 보자. 그러니까 다시 두 이질적 세계간의 경계 문제를 지목하지는 것이다. 집 바깥과 집 안 사이에 굳게 세운 성문같은 경계를, 정작 집 안에서 벌어지는 수용할 수 없는 타자의 넘나들음에서 무기력하게 한

lost my spirit to look into the materials. Then, what are the materials of Seomi Gallery?

Such failure to come up with any answers is most of all a result of my harsh sensibility and thinking. But abusing the title of a critic, I would like to lay some of the blame on the architect. Lets accuse the builder that the Gallery's obscurity of form and material results from the absence of a medium that connects these two different worlds. As the discrepancy between the gallery as visible solid and the house as a void-like hermitage is never resolved, our attention returns once more to the problem of border between the worlds. Why is the firm border of the gate that forcefully disconnects the inside from the outside all of a sudden castrated in the interaction of the other, the uncontainable happenings inside the house? Why is there no concern for what can and cannot be mixed, for the physical and chemical connections, and for the difference between serial connection and juxtaposition? Could it be a consequence of the architect's formal obsessions? With only a slightest hint of

연유는 왜가? 섞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물리적 결합과 화학적 결합, 때로는 직렬과 병렬 등간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은 듯 싶은 것은 왜가? 혹 형식에 대한 집착 때문은 아닌가? 오직 수평선이라는 모호한 추상만 남긴 채 모든 형상들을 엄정한 산업재료와 기하학으로 몰아붙임으로써, 바로 그 성문을 이루는 물질들과 극단적인 대조의 감을 창출하고자 한, 서릿발같은 생각이 여타의 민감한 현상들을 혹 잘라버린 것은 아닌가? 물론 뜯집의 형식 또한 본디 외부에 대한 방어 의식에서 출발했다 한들, 그것이 바깥세계에 대해 취한 형국은 무척 따뜻하지 않은가? 거기에는 이미 물질성이 풍만하므로. '서미 ...'가 드러내는 생똥같은 돌연한 기쁨이, 그리고 그것이 품고있는 거의 흙없는 디테일과 살벌한 조형기예가, 물질의 상상, 그레 우리가 호흡하고 부딪히고 만지고 앉는 모든 몸의 움직임들과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가냘픈 영혼을 더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어찌 우리 존재의 근원인 고향을 다시 불러낼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에도, '서미 ...'는 참 좋은 작품이다. ㄷ

abstraction with the horizontal line, every figures are dealt as strict industrial materials and geometry, as if to create a startling contrast with the materials that construct the castle gate. This may have made irrelevant all the other crucial phenomena. Even when we consider that the form of this house started out as a protective shelter against the outer world, we come to a realization that its stance towards the outside is actually one of warmth - it is filled with materiality. Only when all the happiness of unexpectedness it provides, all the flawless details and precise formal sensibility, and its imagination of materials fail to touch the breathing, caressing movements of our bodies, and the subtle spirit that sits inside them, we finally conclude that it never helped to bring up our hometowns. Nevertheless, Seomi Gallery deserves a praise as a recommendable work.